

버려진 지구
우리가
그랬어



VOL.2 버려진 지구

플라스틱의 심각성
The Seriousness of of Plastic

Plastic zero™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은 코카콜라로, 연간 300만 톤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카콜라 브랜드 로고가 인쇄된 플라스틱 병은 4대륙 37개국에서 총 1만 1732개가 회수되었다.

해양쓰레기 플라스틱 오염 피해 어디까지 가까운가

한 해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며 해양 쓰레기에서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율은 90% 이상이다.
해양으로 유입된 플라스틱은 수백 년 동안 바닷속을 부유하며 한번 바다에 흘러들면 무한히 쪼개질 뿐 분해되지 않는다.

플라스틱의 심각성

일회용 플라스틱은 생산은 5초, 사용은 5분, 하지만 분해는 500년이 소요된다.



6%

전 세계에서 폐기된 플라스틱
63억 톤 중 재활용되는 비율



5,445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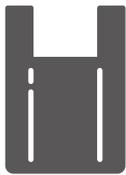
하루당 한국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



132.7kg

한국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63개국 중 3위(2015년 기준)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6년, 약 2억 4200만 톤에 달했다. 이 중 1억 3700만 톤 가량(전체의 57% 이상)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앙아시아, 북미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대부분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5조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비닐봉지의 수



온실가스 방출

플라스틱이 햇빛에 삭으면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25배나 강한 메탄이 생성



3.8%

플라스틱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항공 부문 배출량의 두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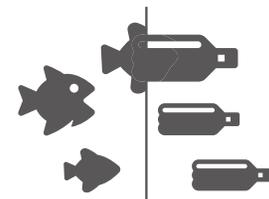
다이옥신

플라스틱을 소각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로
청산가리보다 1만 배 강한 독성 갖고 있음



10만개

매분마다 구입되는
플라스틱 물병의 수



50 : 50

학자들이 예측하는 2050년 바닷속
물고기와 플라스틱의 비율

해양 쓰레기

바다 표면과 바닷속에 존재하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물길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거나 해양투기로 인해 발생합니다. 물에 뜨는 쓰레기들이 모여 바다 한가운데에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90%

해양 쓰레기에서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율



400바퀴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돌 수 있는 횟수



2만 톤

연간 제주 바다에
쌓이는 해양 쓰레기



50%

단 한 번 사용된 후
버려지는 플라스틱



800만 톤

한 해 동안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담배꽂초

연간 바다에 버려지는 담배꽂초
2,412,151개, 해양 쓰레기 1위

쓰레기 자연분해 기간

한 명이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은 약 0.94 kg으로 1년이면 343 kg(2015년 기준)에 달합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쉽게 버리는 일회용품들이 분해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플라스틱

500년



생리대 · 기저귀

100년



알루미늄 깡통

200년



종이컵

20년



담배꽂초

12년

매년 해양 쓰레기로 인해 죽는 동물의 수

바다동물의 목, 다리, 부리, 날개 등에 낚시줄, 밧줄, 그물, 풍선줄이 걸리면 적을 피하기도, 먹잇감을 잡을 수도 없어 생존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는 경우 내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 Icon Created By monnik from noun project



바닷새

100만마리



바다거북

10만마리



바다포유류

10만마리



상어

10만마리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

미세 플라스틱

5 mm 이하의 플라스틱 조각으로, 약 51조 개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바닷속을 부유하고 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을 제외한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고 잘게 쪼개져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1차 미세 플라스틱

제조 당시부터 5mm 이하로 만들어져 마스크라, 합성섬유, 치약 등의 원료로 쓰이는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

길이나 지름이 1mm 미만인 미세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나노 단위로 작아질수록 독성이 커짐.



2차 미세 플라스틱

큰 플라스틱이 풍화작용을 거쳐 깨지고 마모되어 작게 부서진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과정



1차 미세 플라스틱

생산 당시 작게 제조된 플라스틱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에 유입되는 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으로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잘게 쪼개집니다.

① 흘러들어간 미세 플라스틱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지지 못한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감

② 2차 미세 플라스틱

큰 플라스틱이 풍화작용을 거쳐 잘게 부서짐

죽어가는 동물들

고래, 바닷새 등 동물들이 플라스틱과 폴리스티렌을 섭취한 물고기를 먹으면서 성장 장애, 번식력 저하, 감염, 폐사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③ 플랑크톤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하여 섭취

④ 물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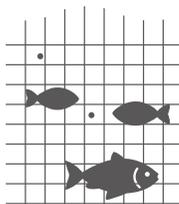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잡아먹음

플라스틱이 주는 영향

먹이 사슬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장폐색, 물리적 상처, 식습관 변화, 에너지 할당 감소, 성장과 번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⑤ 먹이사슬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들이 수산 시장에 들어옴



⑥ 밥상 위

우리 식탁에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생선요리가 올라옴



미세 플라스틱의 재앙

한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약 2천 개로,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신용카드 한 장 무게인 5g에 달합니다. 월간으로 환산하면 치솔 한 개 무게인 21g이며 연간으로 보면 250g을 넘는 양입니다.



1개 ~ 1.9개

물고기 한 마리에서 발견되는
평균 플라스틱 수



최대 21조각

물고기 한 마리에서 발견된
최대 플라스틱 조각의 수



약 2000조각

소금 통해 섭취되는
연간 평균 미세 플라스틱



**홍합, 굴, 참다랑어,
바닷가재 등**

해산물에서 미세 플라스틱 발견



1769개

매주 한 사람당 물을 통해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수



70만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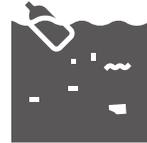
합성 섬유를 한 번 세탁할 때마다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



해양 생물의 몸에 축적돼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인간의 몸에 영향을 줌



물속에서 유독성 물질을 방출하여
해양 동물들에게 악영향을 줌



수백 년 동안 바닷속을 부유하며
한번 바다에 흘러들면 제거할 수 없음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미세 플라스틱은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더 우려가 커지는 분야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이 혈류와 림프계, 간 등의 장기로 유입될 수 있으며 체내에 축적되면 단백질과 DNA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장폐색



물리적 상처



식습관 변화



성장과 번식에
악영향

우리가 그랬어 MEET UP

플라스틱 문제를 시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한 프로젝트입니다.(10월 - 11월 진행) 평범한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동안 환경 문제에 관심이 적었던 시민이라면 더욱더 환영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시선을 가진 여러 시민이 함께 모여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인식을 넓히고 연대감을 경험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어 보는 시간에 함께해주세요.

오픈채팅방 : 우리가그랬어
Instagram : @w.e.d.i.d.it

3차 밋업 이야기

일시 : 2019년 11월 14일 19:00 ~ 22:00
장소 : 무명서점 (한경면 고산리)

참여한 사람들

황현진 : 조약골 : 핫핑크돌핀스 공동 대표.

들님 : 호박죽을 준비해온 핫핑크돌핀스 활동가.

강보민 : 환경 문제에 관심이 거의 없었지만 막연하게나마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라는 눈웃음이 멋진 시민.

서민주 : 환경 문제에 관심이 조금 있고, 좋은 것은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시민.
제주도 한달살기 중이다.

뿌리 :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최근 돌고래에 깊이 매료됐다는 공감력이 뛰어난 시민.

하지은 : 무명서점에 왔다가 이런 모임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 자리에서 참여 약속을 해주신 시민.

송정미 : 제주도 한달살기 중에 이런 모임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참여해주신 시민.

황인철 : 디자인과 브랜딩을 통해 쉽고 아름답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 핸들의 대표.
우리가 그랬어 디자인.

곽예리 : 핸들의 디자이너. 우리가 그랬어 디자인.

전정순 : 평소 환경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많았고 2018년부터 환경 및 동물 보호 활동을 꾸준히 하는 1인 NGO. 우리가 그랬어 기획자.

우리가 무엇을 했나

핫핑크돌핀스의 황현진·조약골 공동대표를 초대해 2019년 10월 16일 출간된 신간 <바다, 우리가 사는 곳> 북토크를 1시간 반 동안 진행했고, 플라스틱 문제를 위해 시민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자유 토크 시간을 진행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어떤 단체인가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알려가는 해양환경단체다. 2011년 한국 최초로 수족관 돌고래 해방 운동을 시작했으며, 2013년 제들이 야생방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족관에 갇혀 있던 남방큰돌고래 일곱 마리를 그 돌고래들의 고향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에 참여했다. 방류된 돌고래들이 야생에서 잘 적응해 살아가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위해 제주돌핀센터(대정읍 신도리)를 세웠다. 그 밖에도 청소년 환경 교육을 비롯해 멸종위기 해양생물 보호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http://hotpinkdolphins.org> 참조



플라스틱 프리 + 채식 지향 모임을 위하여

이번 밋업의 식사를 준비할 때는 플라스틱 프리 외에 한 가지를 더 고민해야 했다. 채식을 하는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분들을 배려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수소문 끝에 한림에 있는 한 채식 식당에서 채식 버거를 주문했다. 버거는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담아 달라고 부탁드렸고, 곁들여 나오는 샐러드는 개별 포장 대신 재사용 가능한 반찬통에 한꺼번에 담아 달라고 부탁드렸다.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분들은 외부 행사에 초청 받아서 이렇게 채식 식단을 제공받아본 경험은 처음이라며 감탄을 표시했다. 앞으로 더 많은 모임이 채식을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구를 지키는 작지만 큰 실천이 바로 채식이니까!

북토크 - <바다, 우리가 사는 곳>

조약골 대표는 육지에서 평화운동가로 활동하다가 강정마을에 내려오게 되면서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헤엄치는 돌고래들을 본 순간 이 생명들을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이 활동을 시작한 계기를 소개했다. 황현진 대표는 우연히 퍼시픽랜드 수족관 뒤편에서 좁고 열악한 수조에 갇혀 사는 쇼 돌고래의 참상을 보고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1인 시위에 나섰다라고 했다. 그것도 원래 남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수줍은 성격을 극복하고 말이다.

캠페인은 거의 언제나 사회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문제를 다수가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시작한다. 어찌 보면 태생적으로 처음에는 무관심과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관심이 많다면 캠페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니까.

“1인 시위할 때 누가 해코지라도 할까 봐 진짜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한 중학생이 다가와 쿡을 내밀면서 ‘우리 가족은 언니 얘기 듣고 수족관 안 들어가기로 했어요’라고 말해주었어요. 정말 큰 보람을 느꼈죠. 이처럼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황현진 대표의 솔직한 화법은 남다르게 강인하리라 느껴지는 활동가도 평범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갖게 했다.

“제들이 야생 방류는 아시아 최초의 사건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생태적 습성상 연안에 살기 때문에 목격이 가능한데, 제들이는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생으로 돌아간 뒤에도 사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제주도뿐일 겁니다.”

제들이를 시작으로 남방큰돌고래 일곱 마리가 갖은 우여곡절 끝에 제주 바다로 돌아갔다. 불법 포획돼 수족관에 갇혀 살면서 길게는 20년까지 돌고래 쇼에 동원됐던 춘삼이와 삼팔이, 태산이와 복순이, 금등과 대포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 함덕 앞바다에 방류됐다. 원래 제주 바다에 살던 녀석들이기 때문에 긴 야생 적응 훈련은 필요 없었다. 춘삼이와 삼팔이, 태산이와 복순이는 야생 생활에 잘 적응하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지만, 금등과 대포는 안타깝게도 현재 목격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 쇼를 금지한 후에 다른 녀석들은 다 바다로 돌아갔지만, 태지라는 녀석만 제주 퍼시픽랜드에서 워낙 사육하기로 결정됐어요.”

태지는 왜 바다로 가지 못했을까?

태지는 남방큰돌고래가 아닌 일본 다이지 마을에서 수입된 큰돌고래이기 때문이다. 돌고래 학살로 유명한 그 악명 높은 곳에 고향이랍시고 다시 보낼 수도 없고, 종이 다른 태지를 극히 적은 수의 남방큰돌고래들만 사는 제주 바다로 풀어줄 수도 없었다. 핫핑크돌핀스는 널찍한 바다 심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현재 태지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믿는다.

“작년 3월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돌고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시민이 목소리를 모았기 때문에 이런 개개였죠.”

지난 9년 동안 돌고래 7마리가 바다로 돌아갔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수족관에는 아직도 37마리가 갇혀 있다. 이들이 활동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해요. 시민들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유해주시는 겁니다.”



“2017년 8월 대정읍 앞바다에서 찍은 새끼 돌고래 사진이에요.”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에 페그물이 감긴 새끼 돌고래였다. 헤엄치는 동작을 반복할수록 페그물은 돌고래의 살을 파고들고 있었다. 바다거북의 쿡구멍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빼내는 영상도 그랬지만, 어떤 말보다 사진 한 장, 영상 한 컷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강력할 때가 많다.

연사들은 자연스럽게 바다의 쓰레기 문제로 화제를 옮겼다. 이렇게 힘들게 야생으로 방류해준 돌고래인데, 녀석들의 터전인 바다가 망가진다면, 돌고래를 지키려는 노력은 허사로 돌아갈 테니까. 이 점을 잘 아는 핫핑크돌핀스는 해양 정화 활동도 정기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연간 800만 톤. 바다로 한번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무한히 쪼개진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

생분해 플라스틱을 개발 중이지만 바다에서 분해되는 속도는 훨씬 느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획기적인 대안이 되기 힘들다. 플라스틱이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막아야 하는 이유다.



생명과 환경을 다루는 주제들은 언제나 마음을 무겁게 하기 마련이지만, 핏핑크들핀스는 희망을 노래하려고 애쓰는 점에서 조금은 달랐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희망을 노래한다는 뜻이 아니다. 정말로 기타를 치면서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부른다. 그게 몇 사람이든 돌고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느낌이 전해졌다. “우리가 그랬어” 활동을 지지하지 않고 계속 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나는 이야기들 -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전정순: 한번 눈을 뜨면 눈을 뜨기 전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돌고래에 대해 정말 모르던 사실이 많았네요. 돌고래가 사는 바다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강보민: 플라스틱을 덜 쓰기 위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평소에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용기를 직접 들고 가서 장을 본다거나 에코백을 이용한다거나 빨대를 거부한다거나 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개인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분해가 되는 대안 제품을 만들던지 해야죠. 기업 차원,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뿌리: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오래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국가 차원의 규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8년, 남극 바다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처음 발견됐다. 같은 해 인체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면서 플라스틱의 심각성이 대두됐다.

전정순: 살다 보면 숫자에 무감각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플라스틱이 썩는 데 500년 걸린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기는 했지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말을 바꿔보면 1907년에 처음 플라스틱이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개도 썩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송정미: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들으니 정말 확 와닿네요.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게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였군요.

전정순: 한국 사람은 연간 평균 420장의 비닐봉지를 사용하지만, 핀란드 사람은 연간 평균 4장을 사용한다고요. 이런 수치를 보면 분명 우리 삶에서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황현진: 서울에는 일회용 플라스틱과 비닐봉지 없이 장을 볼 수 있는 채우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주에도 이런 곳이 있다면 좋겠어요.

전정순: 제주에도 있어요! 도토리마켓과 올바른 농부장이요. 곧 세계 등을 소분해서 판매하는 가게도 생긴다고 해요.

황현진: 와! 좋네요! 이런 정보 공유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뿌리: 가끔 바다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곤 해요. 그런데 플라스틱은 재활용으로 버리면 되니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 없이 주을 수 있어서 좋아요. 조금만 하면 금방 채워지더라고요.



조약골: 일전에 초등학교생들과 손편지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바다에 나가 쓰레기를 수거한 뒤 제조사별로 모았죠. 가장 많은 쓰레기가 나온 제품은 코카콜라, 삼다수, 참이슬, 맥심이었어요. 이 제품을 만든 제조사로 아이들이 주운 쓰레기와 아이들이 직접 쓴 손편지를 보냈어요. 한곳을 빼고는 반응이 왔어요. 담뱃갑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처럼 플라스틱 제품에도 분리수거에 대한 경고 문구를 큼직하게 넣었으면 합니다.

생생한 이끼 부부: 생태 화장실(퇴비화하기 위해 소변과 대변을 따로 모으며 물을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 생태 화장실은 아직 시작하지 못해서 반려묘 생태 화장실을 먼저 해보는 중이에요.

전정순: 저도 생태 화장실 관심이 많은데 퇴비가 될 때까지 쌓아둘 곳이 없으니 염두가 안 나더라고요.

조약골: 저희 돌핀센터에 텃밭이 있어요. 언젠데 갖다 주시면 퇴비로 사용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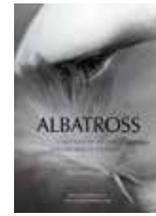
정원경(무명서점 대표): <바다, 우리가 사는 곳>은 활동가분들이 쓰시는 책은 좀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준 책이에요. 저도 읽어봤는데 술술 넘어가서 금방 읽었습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된 출판이나 다큐멘터리 등의 작업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해요.



마무리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일상적인 대화가 아닌 공동된 관심사를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도 얻을 수 있고, 피상적으로 알긴 했지만 깊이 되새겨보지는 않았던 부분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도 얻을 수 있다. 주제가 있는 모임의 소중함은 이런 것일 테다. 돌고래의 삶을 들여다봄으로써 플라스틱 문제로 고통받는 생명과 바다를 생각했던 시간은 매우 값진 시간이었다.

환경영화 추천



01 알바트로스

크리스 조던 감독이 북태평양 미드웨이 섬을 수년간 방문하면서 촬영한 '알바트로스'.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태평양 한가운데 죽어가는 알바트로스의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02 플라스틱 바다

무한대로 생각하고 쉽게 버리는 플라스틱이 어떻게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보여주는 한편, 우리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까지 모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03 리버 블루

환경운동가인 마크 엔젤로가 3년여에 걸쳐 전 세계 패션산업 제조국가들을 두루 다니며 패스트패션의 생산 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문제를 알리고 윤리적 패션을 위한 길을 모색합니다.



04 내일

기후변화, 자원 고갈, 환경오염 등에 맞서 다가올 미래의 지구, 지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전 세계의 슬기로운 지구 생활자들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05 지구: 놀라운 하루

세계 22개국을 돌아다니며 촬영하여 지구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동물들이 낮과 밤의 리듬에 어떻게 몸을 맡기는지 하나의 스토리로 엮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06 더 코브

루이 시호오스 감독이 일본 타이지 마을의 돌고래 학살을 비밀 잠입을 통해 낱알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실상을 담은 시호오스 감독의 <멸종을 막아라>도 함께 권합니다.



07 산호초를 따라서

하와이, 호주, 칠레 등을 돌며 해수 온도의 상승에 따라 몰살하고 있는 산호초의 실태를 추적한 영화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빙하의 소멸을 추적한 다큐 <빙하를 따라서>도 함께 추천합니다.



08 미션 블루

해저에서 7000시간을 보내며 해양 탐구에 일생을 바쳐왔고, 지금도 파괴되고 있는 전 세계 해양을 구하려는 전설적 해양학자 실비아 얼의 캠페인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당 평균 1개~1.9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며 미세 플라스틱은 물을 통해서도 섭취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간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 양은 신용카드 한 장 분량입니다.

버려진 지구 우리가 그랬어

INSTAGRAM

@w.e.d.i.d.it

장소

파파사이트
미래책방
무명서점
그림책방 노란우산
디어마이블루
커피동굴_플랜트
복스페이스 곰곰

디자인 & 기획

핸들

기획

제주스퀘어

주최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블로그

blog.naver.com/jejuculturecity

우리가그랬어

X

Hello We **Handle**. People, Situation, Emotion, Work

Email. handlekorea@gmail.com

Instagram. [@handlekorea](https://www.instagram.com/handlekorea)

Homepage. handlekorea.com

JEJUSQUARE 제주의 남는 것과 모자란 것을 연결하다

Service. jejusquare.kr

Profile. jejusquare.com

Facebook. [facebook.com/jejusquare2018](https://www.facebook.com/jejusquare2018)

Instagram. [jejusquare2019](https://www.instagram.com/jejusquare2019)

Email. jejusquare@jejusquare.com

이 종이는 재생할 수 있는 코팅이 안된 종이입니다.
약간의 색 번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버려진 지구
우리가
그랬어

‘우리가그랬어’는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